

aT, 나고야서 K-푸드 띄운다… 글로벌 ‘가품’ 대응도 본격화

아시안게임 맞아 홍보관 운영
농식품 170여종 현지 전시
시식·체험으로 식문화 홍보
11월까지 모방품 제보 캠페인
中·아세안 ‘지킴이’ 10명 선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폐막하는 10월 상순까지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다. 지난 주말 개막일에 맞춰 신선농산물 등 총 170종의 농식품 전시를 시작했다. aT는 또 해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K-푸드 가품 대응에도 나선다. 22일 개시한 감시활동에는 세계 각국 소비자들도 힘을 보탠다. 향후 두 달간 전개될 ‘글로벌 K-푸드 모방품 인식 제고 캠페인’이다.

aT는 2026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지에서 K-푸드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aT 등은 지난 18일 나고야 도심 한복판에 ‘코리아하우스’를 설치했다. 또 코리아하우스 내에 ‘인조이 코리안푸드’를 테마로 한 K-푸드 홍보관을 꾸렸다.



일본 나고야 도시에 조성된 ‘코리아하우스’

/aT

홍보관에서는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최신 흐름, 전통·건강식품 소개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품목의 K-푸드의 전시와 함께 시식·시음 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문객들이 한국의 식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식초음료를 비롯해 포도, 복숭아, 참외 등 현지에서 주목받을 만한

품목도 전시했다. 총 170여 종의 한국 농식품을 선보인다.

홍보관 방문객 대상으로는 ▲화채 만들기 등의 한국 식문화 체험 ▲상자 속 K-푸드 찾기 퀴즈 ▲K-푸드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하우스 스테이지에서는 한국 요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도 운영 중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대한체육회와 협업해 ‘송편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재일동포 단체인 민단과 현지 교민, 일반 소비자가 한데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정이다.

일본은 K-푸드의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하나다. 지난해 일본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3억45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과 식문화도 유사해 김치·잡곡·파프리카·삼계탕 등이 현지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을 찾는 일본인 방문객 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K-푸드를 접해 본 소비자도 더불어 증가했다. 이에 aT 오사카지사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뿐 아니라 교민 단체·기관 등과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일본 소비자와 K-푸드 간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T의 전기한 수출식품이사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45개국 1만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인 만큼, K-푸드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일본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직접 경험하고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T는 전 세계 소비자와 함께하는

‘글로벌 K-푸드 모방품 인식 제고 캠페인’(real K-Food catcher)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K-푸드의 세계적 인기 때문에 가품 유통에 대한 대응이다.

이미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중화권과 동남아 국가에서 모조품 유통 현황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의 인기 라면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 ▲태극 문양을 제품 전면에 부착한 외국산 김치 ▲‘매운맛’ 등 한글을 표기해 한국산으로 오인할 유도를 과자류 등이다.

올해는 9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 세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모조품 인식 제고 캠페인을 운영한다. 특히 모조품 유통이 빈번한 중국·아세안 국가의 우수참여자 10명을 ‘K-푸드 지킴이’로 선발한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400여 명을 추천해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소비자는 물론 해외를 방문한 내국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T 홈페이지 내 real K-Food catcher 코너에서 제품 전면 사진과 원산지 표시 사진, 제품명, 유통매장, 모방의심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12차 전기본 앞두고 ‘원전 공론화’ 착수

기후부, 원전 공론화 계획 보고
이해관계자 뺀 공론화위 구성
시민참여단 3개월 숙의 진행

정부가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확정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범국민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AI·반도체 등 급증하는 미래 전력수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원전의 위치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원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공론장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중립적 인사 중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중립적 인사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원전 이해관계자는 위원 직에서 제외되며, 원전 기술 및 수급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지원하게 된다. 부처 내부에는 공론화를 밀착 지원할 전담 TF 형태의 ‘공론화지원단’도

약 3개월간 운영된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게 뽑힌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 의견은 숙의 전·후 조사를 통해 의견 변화를 확인하고, 전문가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이 다각도로 병행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약 3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기후부에 권고하면, 정부는 이를 전력수급 및 계통 등 전문적 검토 결과와 종합해 최종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전기국가 토론회(8.20), 전력수요 토론회(8.20),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8.26),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9.18) 등을 연속 개최하며 분야별 의견을 모아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보, 머큐리아에 2억달러 지원

국적선사 용선계약 확대 기대
국내 해운사 수주기회 넓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가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에 대규모 중장기 금융을 지원하며 국내 해운산업의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섰다.

무보는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인 머큐리아(Mercuria)에 한국 해운사 앞 용선료 지급을 위한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해외사업금융보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머큐리아는 싱가포르와 스위스 제네바에 거점을 두고 원유·광물 등 핵심 원자재를 거래하는 세계적인 중개기업으로,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과 용선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금융 지원은 머큐리아가 향후에도 한국 해운사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머큐리아가 최근 3년간 한국 해운사에 지급한 용선료 중 중견기업 비중은 약 15%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 이용이 늘어나면 국내 중견 해운사들의 수주 기회와 용선료 수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지난 8월 머큐리아 제네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한국 해운사 이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렇게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우리나라 무역 공급망을 지탱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위해 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수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마사회, 몽골 흡스골주와 말산업 협력

말문화·관광 연계 협력방안 모색

한국마사회가 몽골의 흡스골 주와 ‘말문화 및 말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유한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말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몽골 측 대표단이 지난 주말 한국을 찾았고, 랫트란프크 서울(과천경마공원)에서 협약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우회종 마사회장과 돈도브 푸레브도르지 흡스골의회의장, 바트에르덴 몽골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교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협약은 마사회가 지난 7월 한·몽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몽골을 방문해 마련한 교류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

다. 당시 한국마사회는 몽골 ‘세계 말의 날 재단’(WHDF)과 말문화 및 말산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방한한 흡스골주 대표단은 몽골의 전통 말문화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했다.

앞서 마사회는 오토근 사륜출론 국회의원과도 ‘말을 활용한 재할·치유분야 및 말산업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우회종 회장은 “몽골은 말 자원이 풍부하고 고유의 전통 말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국가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말산업 인프라와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말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추석 맞아 전국 30여곳에 온정

임직원 모금으로 위문금 마련
전국 복지·장애인시설 30곳 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에 위문금·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단 본부와 고용개발원, 32개 소속기관이 모금에 참여했고, 이날 전국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 30여 곳을 방문했다.

위문금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또 지역 상생도모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소속기관별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찾는 등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22일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본부·고용개발원 임직원이 모금한 200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단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